

	히브리 3-4
	데일 #C2297
	척 스미스
우리 모두 히브리 3장을 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히3:1)	
그러므로 란 말은 우리를 다음에 나오는 말과 즉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이것이 히브리 책에 관한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모두다 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의 종교인 유대 종교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자들을 위함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였고 제사장의 경배와 의상에 아주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 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선언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레위지 파의 족보를 따라 되는 제사장 보다 우위라는 것을 보여 줄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현재로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사제도를 설립한 모세보다 우위임을 보여줄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 곧 영적인 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회막을 만들게 하였고 치수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저가 자기 를 세우신 이 에 게 충 성 하 시 기 를 모 세 가 하 나 님 의 온 집 에 서 한 것 과 같 으 니 3:3 저 는 모 세 보 다 더 옥 영 광 을 받 을 만 한 것 이 마 치 집 지 은 자 가 그 집 보 다 더 옥 존 귀 함 같 으 니 라	
현재 흥미있는 사실은 그집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인 단체를 지칭하여 사용한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음을 볼수있습니다. 우리는 왕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p>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p> <p>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p> <p>“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역대하 6:8)</p>
<p>나에게 흥미있는 사실은 아니 더욱 영광스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우주에 어디든지 그가 원하시는 곳에 거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실때 에 그의 임재를 깨달아야 할것입니다.</p> <p>그래서 오늘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중에 바로 여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p> <p>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좋아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가요?</p>
<p>집을 짓는 자가 그집자체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집을 지은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p>
<p>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p>
<p>이것이 인과 법칙의 원리 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한 것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바라보고 그집의 건축 구조가 좋다고 생각될때에 당신은 말하기를 “누가 이집을 지었나요/” “누가 이집을 설계하였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조금 속여 보려고 말하기를 “아무도 이집을 지은 사람을 없습니다. 그냥 어떤날 보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p> <p>여러분들은 지진을 잘아시지요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땅에서 아름다운 문이며 아름답게 무늬가진 유리창이 있는 집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라고 말한다면 아마 당신은 말하기를 “당신은 미쳤소”라고 말하며 원인이 없이 결과는 없다고 말할것입니다.</p> <p>다시말해서 집짓는 자가 없이는 집이 지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자가 있습니다. 그말은 인과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p> <p>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과 법칙에 대한 논쟁입니다.</p>
<p>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집을 하나 장만 했다면 그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교회를 지은 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반석위에 내가교회를 짓겠노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그집 자체보다 더크신 것입니다.</p>
<p>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p> <p>3:5 또 한 모세는 장래의 말 할 것을 증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p>

그래서 모세는 충성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환이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심판과 경배와 예식을 선언하였고 이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이 것 들 은 장 래 일 의 그림 자 이 나 몸 은 그리스 도 의 것 이 니 라”(골로새2:17)

만일 율법으로 다시돌아가보고 희생 제사제도를 살펴보면 또 의식들을 관찰해보면 이모든 것이 그 배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을 뜻하고 있으며 이모든 것이 예수를 의미하고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언 된 말씀을 증명하며 성취하시는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충성된 사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리 스 도 는 그 의 집 말 은 아 들 로 충 성 하 였 으 니 우 리 가 소 망 의 담 대 합 과 자 랑 을 끝 까 지 견 고 히 잡 으 면 그 의 집 이 라(히3:6)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인내할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그 모든 전통을 떠난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유대교와 전통으로 빠져들어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서를 기록한자가 바울이라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를 쓴자가 누구이든지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나의 의견이며 바울은 그들이 소망을 견고히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소망의 기쁨과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3:8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3: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3: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 니(히3:7-11)

그래서 바울은 시편95편을 3장과 4장에서 두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와 율법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프리바의 우물에 왔을때 프리바는 다툰다는 뜻을가졌는데 그들이 광야의

트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해왔도다. 마실물이 없어 우리가 죽게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좋을뻔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말을 40년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이상 참을수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더이상 참을수가 없나이다. 그들은 40년동안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내가 낳은 내자식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생산 하지도 않았고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기에는 이제 지쳤습니다”라고 말했을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백성들이 목말라하지 않느냐 그들은 마실 물이 필요하다. 네가 가서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 말하기를 “항상 원망과 불평만하는 사이비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의 마실 물을 위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다시금 쳐야 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리 줌오너라 내가 반석을 쳐라 했느냐? “아닙니다.” “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했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 그런데 왜 반석을 쳤느냐? “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하시기를 “모세 야 너는 백성들에게 나를 잘 나타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를 보고 나의 태도와 나를 알게 될것인데 모세야 너는 나를 잘 나타내지 못하였다. 너는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것처럼 백성들에게 나타 내었는데 나는 화도 나지 않았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실물이 필요 했고 나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노라 나는 그들의 필요를 잘알고 있었다 라는 뜻의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잘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것이다.

“오 하나님 진정한 말씀이 아니시지요” “ 모세야 내가 말한데로야”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그것이 나의 전생의 소원이 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됐어 모세야” “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않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번 간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당신이 안식으로 들어 갈수 없다는 사실을 관찰 할수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당신은 결코 안식에 들어올수 없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 갈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복지로 향하여 들어가는 초창기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에 왔을때였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 까지는 단지 열하루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십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들이 스파이를 약속의 땅에 보내었는데 그중 열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결과로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들어갈수 없다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그땅을 차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구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가봐 두렵다고 했지 내가 말하노니 역사적으로 가장 긴 장례식이 될것이야 너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 머물게 될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가 두려워 하던 너희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땅을 차지 하게 될것이야”라고 말씀하 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으로 부터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데 대한 대목을 말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이르시기를 너희는 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맞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9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모았도다

10 내가 사십년을 그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시편95:8-11)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히3:12)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죄에서 구속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흑암에서 빛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하고 풍성한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크리스찬생활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듯 광야의 경험뿐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누려야할 동행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생활과 승리의 생활인 하나님의 완전한 부에 들어 오도록 계속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듯 우리들도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p>약속을 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p>
<p>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3-14)</p>
<p>다시금 이본문에서 두번이나 인내할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번 입니다. “우리가 시작할때에 확신한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p>
<p>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3:16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3:17 또 하나님이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었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3: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3:19 이로 보건 대저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3:15-19)</p>
<p>그들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주시함이 아주 중요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수 있음을 믿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적들의 능력을 비교하여 보았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들어 갈수 없다”라고 했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도록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적의 능력을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적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서워 하는 마음으로 가득차서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자 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신자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보다 크심이라”0(요일4:4)</p>
<p>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체사장이며 모세보다 크시며 모세는 단지 집의 사환일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들로써 집을 지은 자시요 또 집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모세는 그들을 안식에 인도할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안식으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4 장</p>
<p>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히4:1)</p>

오늘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 볼때 당신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 생활과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의 깊은 화평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다툼과 불안과 착잡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오늘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검토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안식에 들어 갑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할찌라도 당신은 그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안식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오늘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윤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히4:2)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야 만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계속 불안과 혼란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을 당신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주장하신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 하신다고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전부를 조절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좌를 떠나 더이상 통치하지 않는것 처럼 생각하고

<p>행동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복하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p>
<p>4:3 이 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 회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p>
<p>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이 안식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p>
<p>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 주시기만 하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p> <p>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 났으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선을 이루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미리 볼수있다면 아마 내가 보다 쉽게 안식할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식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 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이나 재주에 안식할수도 없고 당신의 노력에도 안식할수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는 어떤것을 통해서도 당신은 결코 안식할수 없습니다.</p> <p>“주님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환경을 어떻게 조절할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p> <p>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계획을 믿사옵니다.” 그렇게 믿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면 완전한 안식을 할수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완전한 화평에 이르게 됩니다.</p> <p>이사야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p>
<p>4:3 이 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 회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 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p>
<p>행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위를 완성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6:28-29)</p> <p>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끝난일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p>

구원하시는 사역에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접되기 위해서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에 참가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안에서 당신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것과 같이

“3:1-3 어 리 석 도 다 갈 라 디 아 사 람 들 아 ! 예 수 그 리 스 도 께 서 십 자 가 에 못 박 히 신 것 이 너 희 눈 앞 에 밝 히 보 이 거 늘 누 가 너 희 를 찢 더 냐 2 내 가 너 희 에 게 다 만 이 것 을 알 려 하 노 니 너 희 가 성 령 을 받 은 것 은 율 법 의 행 위 로 냐 ? 듣 고 믿 음 으 로 냐 ? 3 너 희 가 이 같 이 어 리 석 으 냐 ? 성 령 으 로 시 작 하 였 다 가 이 제 는 육 체 로 마 치 겠 느 냐”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할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 할무렵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가서 취할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땅을 점령 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차서 그들의 마음이 거인에게 집착되어 말하기를 “우리는 할수 없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생활에서 하나님의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앞에 성령 안에서 풍성한 생활과 성령안에서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사는 것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그렇게 살수 없어 그것은 내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될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어디보자” 라고 말씀 한것같이 심지어는 “그 리 므 로 나 의 사 랑 하 는 자 들 아 너 희 가 나 있 을 때 뿐 아 니 라 더 욱 지 금 나 없 을 때 에 도 항 상 복 종 하 여 두 렷 고 떨 림 으 로 너 희 구 원 을 이 루 라”

(빌립보 2:12)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 하면서 할수없다고 만 말합니다.

이성경구절이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놓았는지 이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설교를 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서 그치고 있는데 말씀의 문장반만 보고 있는데 그말씀의 전체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잇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 희 안 에 서 행 하 시 는 이 는 하 나 님 이 시 니 자 기 의 기 쁘 신 뜻 을 위 하 여 너 희 로 소 원 을 두 고 행 하 게 하 시 나 니”(히2:13)

성경구절 전체를 보지않고 반만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전체를 보면 그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볼수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배제하고 모든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내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십 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저하는 뜻과

행할수 있는 능력 이 두부분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 할수 없는 것을 하실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내속에 영광스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내가 완전한데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갈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속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님께 계속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도 하지만 이제나는 하나님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수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리고 그의 끝난 일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4:4 제 칠 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 령 계 일 렸 으 되 하나님은 제 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4:5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는 그의 창조 하시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이 한번 끝났으면 창조의 일이 다시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칠 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셨습니다.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짐승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23:12)

이제 모세의 율법에 설립된 안식일날 쉬는 것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안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날 쉬는것을 어떤 행위의 논제로 만든것 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안식일을 실제로는 어떤 일하는 것으로 변개하고 그들은 그날을 지킬 규칙과 법규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짐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의치도 짐이 되니 질수 없다라고 정하니 내가 생각컨데 가짜눈섭도 같은 분류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

<p>한것 같습니다.</p> <p>안식일에는 현금을 쓸수는 없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크레딧 카드는 쓸수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사고 팔고하는 것을 금하여 현금을 사용할수 없지만 크레딧카드는 오늘 지불하지 않음으로 괜찮다는 불균형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가 현금내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를 쓰는 편이 더욱 편리하긴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은 돈으로 지불한다고 생각되지 않고 단지 프라스틱 카드로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p>
<p>그러나 안식일은 예수그리스도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제의 인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p> <p>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2:16-17)</p>
<p>오늘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날 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식일날 예배해야 한다는 율법을 교회에 설정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 만일 당신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애 쓴다면 당신은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될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p> <p>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10)</p>
<p>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안됩니다. 안식일날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은 당신이 자동차의 엔진을 걸때에 휘발류에 점화하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칙에 위반 되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도 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구에 불을 오게하기 때문 입니다.</p>
<p>4:6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하게 말라 하였나니</p>
<p>본문에서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이라고 다섯번이나 명시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입니다. 그는 어떤 날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다윗은 오늘이란 말을 하였는데 광야의 실패후 오랜시간 이후의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후 오랜 세월 후에도 그들이 들어 갈수있는 날을 아직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p>
<p>4: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하게 말라 하였나니</p>

<p>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대에 사는사람들에게 간청하기를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들의 표본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라고 했습니다.</p>
<p>만일 예수께서 (4:8)</p>
<p>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의 어원은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직책을 이어 받은 자가 여호수아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습니다.</p>
<p>4: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p>
<p>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 하였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안식이었습니다.</p> <p>이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끝난 사역안에 있는 것입니다.</p> <p>“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 할자가 없습니다”</p> <p>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값을 다 치셨습니다.</p> <p>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분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p> <p>이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입니다</p> <p>그의 끝난 구원의 사역에 내가 보충하여 참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p> <p>이 사역은 그분에 의하여 단번에 끝을 낸 것 입니다.</p>
<p>이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안식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p> <p>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분투 노력할 것입니다.</p> <p>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며 노력할 것입니다.</p> <p>아니면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니 단지 믿음으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p>
<p>4: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p>
<p>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p>
<p>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할 장소가 있습니다.</p>
<p>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p>
<p>하나님께서 자기일을 끝 내었을때 곧 제철일에 쉬셨습니다.</p> <p>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끝 내었을때에</p>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일은 사람을 구속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일을 끝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구속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심과 같이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미 제공하신것 이외에 당신을 구원 하기 위한 다른 아무 방도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접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터 영접되기를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이말씀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일에 있도록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이 사랑하는자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주워지는 것입니다.

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사탄은 우리의 발걸음 마다 도전할것입니다.

“너는 할수 없어 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없어 내가 어떻게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용기 저하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믿고 의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나의생활 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사탄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 도전하므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쓰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속에 다시금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야 된다고 격려하여 나를 혼란과 불안속에 휘몰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내가 그렇게 할때에 실패할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p>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어떤것도 실패로 돌아 갈 것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p> <p>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이 육신으로 성취하려고 할때에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실패 할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화평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혼란 상태에 빠지며 용기 저하 될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p>
<p><i>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4:11)</i></p>
<p>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인들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트릴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바라보다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p>
<p><i>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i></p>
<p>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는데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 하고 있습니다.</p> <p>“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3:6)</p> <p>사람들은 성경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p> <p>그들은 말하기를 “의문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것이 아닙니다.</p> <p>본문의 뜻이 율법의 의문을 지켜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p> <p>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죽입니다.</p> <p>율법은 매시간마다 당신을 저주하여 죽게 할것입니다. 율법의 의문은 당신을 매번 죽입니다.</p> <p>그러나 영은 생명을 줍니다.</p> <p>본문에서 선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p> <p>두날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을 쪼갭니다</p>
<p>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갤수가 있습니다.</p> <p>영과 혼은 우리가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p> <p>사람의 영과 혼은 너무나 서로 짜여있고 또 이들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혼(마음) 적 이나 감정적인 것인지 감별하기가 힘듭니다.</p> <p>영과 혼을 구분하여 나누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이 혼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를 나눌수가 있습니다.</p>
<p>그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p> <p>내가 예수님의 완성하신 일을 믿든지 아니면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완전하게 되어 보려고 하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p> <p>만일 내가 나의 행함을 의지한다면 나는 안식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p>

<p>동기로 그일을 하는지 내자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p> <p>우리가 어떤일을 할때에 밖으로 볼때는 아주 놀랍고 좋은 일입니다.</p> <p>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자신을 검토해보면 그속심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나는 “예수사랑하 심은” 이라고 핏바람을 아주 크게 불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놀랍구나”라고 감탄하지만 그 놀라운 일의 배경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p> <p>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 람 에 게 보 이 려 고 그 들 앞 에 서 너 희 의 를 행 치 않 도 록 주 의 하 라 그 령 지 아 니 하 면 하 늘 에 계 신 너 희 아 버 지 께 상 을 얻 지 못 하 느 니 라(마태6:1)</p> <p>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도우소서. 나의 착한 행위의 배후에는 내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p> <p>예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p> <p>우리가 몸 에 있을 때 행한 선악간의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에 서는 날 이 오 겠 다 고 말씀 하 셧 습 니 다.</p> <p>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p>
<p>우리가 주님앞에 설때에 우리의 행한일도 주님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게 될것인데 내가 행한 일 혹은 아니한일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것을 행한 일의 동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게된 동기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좋은일한 것들이 제외 될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불에 의하여 심판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상이 주워질 것입니다.</p>
<p>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합니다. 많은때에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쓴 편지에 대해서 억지로 잘못 해석 하여 멸망에 이룰수 있다고 말한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지적하기를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예수님의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도 말했습 니 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일도 할 필요가 없군 우리가 행한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해서 뭘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p>
<p>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일의 배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보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에 나의 한일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것 저것을 한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일에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하여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 합니다. 내가 한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영광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깨닫고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 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열정뿐입니다.”</p>
<p>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p>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 할때에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수 있을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일이 너무도 큼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드려서 감사 할수 있을까? 단지 나의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 드리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일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일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행한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저는 단지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밤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양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모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찬양을 할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찬양을 시작할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찌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다면 그것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것이 참된 찬양인가요 아니면 의기적인 것인가요? 나는 축복 받기 위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의 선하심을 생각 할때에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깨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 나와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에 감사하여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나에게 반응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시작하시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수년동안 많은 금식기도를 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기도 에 반응을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금식기도는 나의 행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금식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금식기도 하는 날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마는 그때는 나의 초기의

<p>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했던 목회시절과 같지 않고 지금은 금식하는 동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하게 될것입니다.</p> <p>금식기도에 대해서 쓴책들을 읽어 보면 금식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역사하실수 있도록 하는 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책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기위해서는 “당신이 금식을 해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일 금식하면 무슨일이 일어나고 10일금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15일을 금식하면 무슨일이 일어날것이라는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얼마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금식함에 따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시는 시작자 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p>
<p>4:13 지으신것이하나라도그앞에나타나지않음이없고오직만물이우리를상관하시는자의눈앞에벌거벗은것같이드러나느니라</p>
<p>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것도 숨길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열린 책과도 같습니다.</p> <p>당신이 생각하는 어떤것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p> <p>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생각하기 전에 미리 나의 생각을 아신 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열려 있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왜 하는지 동기도 아십니다. 바로 그 이유때문에 나는 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p> <p>나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보다 주님의 끝난 일에 내가 서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p>
<p>내가 어렸을때 이웃집 아이들과 클럽하우스에 가서 전지 밧데리를 가슴의 티셔츠 안에 넣고 계집애인야 흥내를 내는 작난을 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마 4살쯤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그때 나의 어머니가 와서 그것을 목격 하였습니다</p> <p>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작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대림질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평생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p> <p>나에게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면 내가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p> <p>하나님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p> <p>하나님앞에 아무것도 숨길수 없습니다. 하나님앞에서 숨기려하는 것은 얼마나 어</p>

리석은 일인지요.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델인 땅위의 지성소에는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이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우리에게는 영광스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나의 약함을 잘 아시고 계시며 그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유혹을 모두 채울하신 분입니다. 그는 나의 문제점을 잘 아십니다. 그는 나의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잘 이해하며 동정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4:16 그러므로 우리가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자신의 한 일을 받아 주시고 상을 달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번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 한 일에 대해서 상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감히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나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혹 받듯이 그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혹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를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p>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접근 하는 것이며 나의 행위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p> <p>나는 나를 향한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초 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내가 필요할때에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p> <p>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써 초청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때에 나를 돕는 은혜를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p>
<p>이제 우리는 어릴때부터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p> <p>만일 오늘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오늘밤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 어릴때부터 나쁜일 한테 대해서는 벌이며 착한일을 했을때는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p> <p>너는 오늘 나쁜짓을 했기때문에 오늘밤에는 아이스크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산타클로스할아버지도 너의 행실을 두번이나 체크하며 네가 나쁜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한보따리 매를 맞게 될것이다</p>
<p>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p> <p>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p> <p>만일 나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 간다면 대부분 시간에 나는 나아갈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나아 간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습니다.</p> <p>만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후에 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일이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p> <p>나는 그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이 활짝열려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풍성함이 값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p> <p>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동정 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p>
<p>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하십니까?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나아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신 사역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나아가십니까?</p>
<p>그래서 오늘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자신의 의로움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p> <p>“오늘밤 하나님 이번 주일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행한 모든일이 잘 되여가기 때문에 그것 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p> <p>주님께서 예수로 말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p>

<p>초청하셨읍 니 다.</p> <p>저는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 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아 옵니다. 나는 받을 가치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나를 축복하여 주시 읍소서”</p>
<p>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것을 믿고 의지 함으로 그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p> <p>축복의 결핍은 당신의 헌신의 결핍으로 오는 것은 아니며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p> <p>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p> <p>“오 나는 이번주에 주님께 헌신하는 일을 게홀리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를 못하겠군요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 시켰읍니다. 하나님께 요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도와 달라고 해봐야 도와주시지 않을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번주는 아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이 거든 내가 감히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말을 못하겠군 그는 나를 도와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알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믿 지 않는다면 도와 주시지 않 을지도 모릅니 다.</p> <p>축복의 결핍은 헌신의 결핍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것이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p>
<p>많은 경우에 나의 실패가 나의 믿음의 길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믿는 것보다 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p> <p>하나님께서 이러한 개념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당신의 생활은 안식에 처하게 될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p> <p>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일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게 될것입니다.</p> <p>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놀라워서 당신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게 될것입니다.</p> <p>“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 우신 분이 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될것이며</p> <p>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축복에 축복 그리고 축복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 오게 하실것입니다.</p>
<p>하나님 오늘밤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신 일을 믿게 도와 주시 읍소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p> <p>오 하나님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하옵는지요.</p>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끝내신 구주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의 끝내신 구속의 사역에 안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주님께 바쳐 드리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오며 당신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번주에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활에 풍성하신 그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넘치고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